

# 100% 천연 코튼 마스크...차별화된 기술력 주목

국내 유일 유기농 코튼 안감 적용 장시간 사용해도 트러블 걱정 NO 식약처·美 FDA 인증...품질 인정 지난해 두바이 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스크 2만 장 기부 등 사회공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바이오·메디컬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전염병 진단키트부터 마스크와 소독제 같은 방역물품, 치료제와 백신 같은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바이오 메디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한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른바 'K-바이오메디컬'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는 기업 규모는 비록 초대형 바이오 기업보다 작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꽤 있다. 코로나19 개인 방역에서 필수적인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주)우아헬스케어(대표 전은표)도 'K-바이오메디컬'을 이끌어갈 기대주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마스크 원단 차별화를 통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남양주 공장 모습(위 사진)과 지난해 11월 기업 연고지 남양주 지역의 감염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2만 매를 기증한 우아헬스케어. 사진제공 | 우아헬스케어

## ●유기농 코튼 마스크 기술력 국내외 인정

2020년 6월 창립한 우아헬스케어는 '바른생각 코튼마스크'라는 브랜드로 보건용 마스크를 전문 생산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고의 품질', '정직한 서비스', '제품의 차별화'라는 경영이념을 가진 우아헬스케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안감을 100% 유기농 코튼으로 제작하는 유일한 회사다. 그동안 마스크 안감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우아헬스케어는 자

체 기술력으로 마스크 내면에 몸에 좋은 유기농 코튼을 도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 안감에 천연 코튼을 사용하면 우선 민감한 피부 트러블이나 발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피부에 닿는 면을 목화솜 오가닉 필터로 하면 장시간 사용해도 피부 트러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폴리프로필렌을 내면으로 쓴 마스크는 착용자에게서 발생하는 분비물이나 바이러스를 튕겨내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가닉 코튼은 이런 것들을 흡수해 버린다.

특히 오가닉 코튼 필터의 마스크는 어린이들이 사용해도 좋다는 인증인 '오

크텍스100 인증'을 받아 자녀 건강에 민감한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

우아헬스케어는 이런 장점을 지닌 코튼 오가닉 필터의 마스크를 국내 생산시설에서 제작하고 있다. 우아헬스케어의 마스크는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인증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 창립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수출을 하는 등 해외시장도 발 빠르게 개척하고 있다.

##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

이제 창립 1년이 조금 넘는 '젊은' 회사지만, 우아헬스케어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국내와 해외 진출을 위한 활발한 기업활동 한편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업 연고지인 남양주 지역의 감염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3중 비말차단 마스크 2만 장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증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손잡고 기술교사로 나서 소의 계층의 교육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랑구, 대한민국제향군인회 등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봉사활동 협업을 펼쳐 중랑구청장, 서울재향군인회장,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전은표 우아헬스케어 대표는 "보건용 마스크 원단의 차별화를 꾸준히 연구해 이제 기술력과 품질은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고대안암병원, 내달 8일부터 맑은숨캠프 참가 모집

고대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는 '2021년 맑은숨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4주년을 맞는 '맑은숨캠프'는 올해는 8월 8일부터 21일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캠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실시한다. 고려대 의과대학생 봉사활동단체 그린타이거즈가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 주제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8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고대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맑은숨캠프' 모집글을 통해 신청하거나, 포스터나 전단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천식환경보건센터 사무국(02-920-5464, ehc5464@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여름철 불청객 '장염', 예방에 주의 기울여야



장염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대부분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기인한다. 여름에는 세균성 장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8~9월 장염 환자의 약

80%는 비브리오균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급성장염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탈수나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높아 내과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예방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장염은 대장에 주로 발생하지만 소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음식 섭취 후 빠르면 2시간, 늦으면 이를 내 증상이 나타난다. 구토, 설사, 복통 이외에 혈변이나 묽은 변, 탈수가 동반될 수 있다. 장염 진단 시에는 치료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장염이 생겼다면 병원에 갈 때까지 끓인 물과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수액치료를 진행한다. 발열을 비롯해 혈변이나 점액성변이 동반되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원인이 단순 노로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 설사를 유발하지 않는다. 비세균성 장염이거나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증상이 유사한 과민성장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단순 장염이라 여기고 방치해 병을 키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소화기계 이상 증상이 계속 느껴지면 내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관악구 테크노내과 이지경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동국제약, 에어컨 사용 알리지 비염에 효과 '코엔텍' 출시

실내 각종 알러지 유발물질 차단 효과 색소·보존제...차방전없이 구매가능



여름철 알러지 비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이 알러지 유발물질 차단제 코엔텍(사진)을 내놓았다.

코엔텍은 실내 각종 알러지 유발물질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동안 알러지 비염은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주

축으로 여름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코엔텍은 생체적합성 시험을 마친 고

로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절기가 아니어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 기온 차이로 알러지 유발물질과의 접촉으로 여름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순도 고점도의 의료용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성분의 제품(의료기기)이다. 유럽에서 개발되어 임상연구로 입증된 성분의 회피요법제이다. 코(비강)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해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차단한다. 회피요법은 알러지 비염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으로 진드기 제거 및 공기 질 개선, 반려동물 제한 등 유발 물질을 피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단순히 알러지 유발 물질

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유럽에서는 코엔텍과 동일한 성분의 회피요법제가 개발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코엔텍은 색소나 보존제가 없고, 졸음 유발이나, 과민 반응, 습관성, 약물 내성 등도 보고된 바가 없으며 기존 치료법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연고형태로 플레인(무향)과 민트 두 종류가 있으며,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동국제약은 코엔텍을 소개하기 위해 유명 웹툰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온라인 바이럴 광고도 6월 공개했다. 김재범 기자

## 박경희의 운수 좋은 날

7월 22일 (목) 음력: 6월 1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시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때마침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노력하라.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난관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제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형사 일이라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마라.

오늘의 날씨			22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26 36	26 35	23 36
강릉 0/20	대전 0/0	전주 0/0	23 31	24 35	23 35
광주 0/0	대구 20/10	부산 0/0	23 36	24 34	25 31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23 33	26 31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26호**

발행인: 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신임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